

일주문

현성 스님,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10월 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000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도법 남원 실상사 회주 스님은 10월 15일 오후 7시 산내초등학교 대강당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개최한다.

봉은사 행복나눔 바자회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13일~15일 정로마을 요양병원 및 달마학교 지역아동센터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등 작품 공모전
정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스님은 10월 16일까지 '동작품 공모전'접수를 진행한다.

한·중·대만 불교교류 산사음악회
혜일 제주 서귀포 정방사 주지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5시 정방사 특설무대서 한·중·대만 불교교류의 장 산사음악회를 연다. (064)762-2775

서산 일락사 산신제
경학 서산 일락사 주지 스님은 10월 17일 대동한마당을 시작으로 7일간 산신제를 봉행한다.

영평사 산사음악회
환성 세종 영평사 주지 스님은 10월 3일~11일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불교공뉴스 5주년 108명예기자 모집
혜철 불교공뉴스 대표 스님은 10월 1일 창간 5주년을 맞아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추계 철야정진법회
정봉 전근홍 상경 보림선원장은 10월 16일~18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새말귀 CD법문 및 녹취집을 교재로 참선 수행하는 추계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

<인사>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선)은 10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강동훈 경경기회국장 겸 포교문화국장 △박관우 보도국장 △최윤희 편성제작국장 △권병훈 기술영상국장 △박시하 전법후원국장 △박상필 편성제작국 제작위원

“사찰음식, 종교 음식의 교과서”

종교음식전문가이자 사찰음식점 '마지' 김현진 대표



도제 교육은 상업, 공업, 기술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장인(匠人)의 집에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 봉사하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직업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데 매우 엄격한 훈련을 장기간에 걸쳐 한다. 힐링 열풍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과 인기가 높은 '사찰음식'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음식 문화에 나선이가 있다. 사찰음식점 '마지'의 김현진 대표이다.

도제교육 효과... 철학부터 마케팅까지
3.1운동 캠페인... 신체 밸런스 도움
한식 세계화, 종교 음식으로 풀어

'마지'는 사찰음식처럼 모든 종교의 거스름이 없는 언어로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영단, 약초', 아프리카에서는 '생명수', 기독교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마지운동'으로 일본에서는 '진실한' 불교에서는 '붓다에게 올리는 공양' 등의 의미를 지닌다.

"사찰 음식은 오신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미각을 돋워 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맛을 기억하기 힘든 점이 있지요. 그래서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이나 그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도제식 교육은 단순히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 사찰음식에 대한 의미와 불교적 사상은 물론 경영비즈니스, 마케팅 실전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공유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불교의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선 생소한 종교음식 전문가이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찍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자이나교 등 종교 음식의 인종법도 제대로 몰라요."

"음식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맛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음식들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다양한 분야가 녹아 있지요. 종교 음식 전문가 영역은 한국서 블루오션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큰 발전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할랄(Halal) 음식이나 유대교의 코셔(Kosher) 음식을 먹는 이들이 한국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의 인종법도 제대로 몰라요."

김 대표가 처음부터 종교 음식에 관심 깊었던 것은 아니다. 10년간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학 가르치다가 2007년 우연히 사찰음식 공부를 시작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어머니의 영향도 컸다. 출발은 사찰

음식이었지만 점점 범위를 넓혀 다양한 종교음식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배울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음식 조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각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실된 종교 음식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 고민을 통해 오신체 없는 사찰음식점 '마지'가 탄생한 것이다.

"사찰음식이 채식이다 보니 그것을 익히면 다른 종교음식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기본기가 갖춰지더군요. 딱 맞아 떨어지기 보다는 모든 종교의 거스름이 없는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는 사찰음식점이지만 실제로 불자 고객은 10퍼센트 정도고, 주로 이슬람교, 유대교, 자이나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관계자들이 더 많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낯선 사찰음식점이다.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마지'의 고객들이 채식주의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20프로도 안 돼요. 채식 하는 분들은 번거워서 오히려 외식을 잘 안해요. 또 불자 분들도 사찰음식을 자주 접하다보니 사찰음식점에 안 옵니다. 이 때문에 '마지'는 채식주의자, 불자 고객을 넘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삼일운동 캠페인을 펼칩니다. 평상시 고기를 섭취하고 1주일에 3일, 1주일에 세 끼, 세 번 외식 중 한 번만 오신체를 넣지 않는 '마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분명 몸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이어 김 대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식의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주입식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한식을 소개해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kimj217@hyunbul.com

팔공총림도 '붓다로살자' 동참

동화사 대구경북 최초 실천도량 선포식

조계종 자성교좌선결사추진본부가 추진하는 '붓다로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에 팔공총림 동화사가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동참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덕문)는 10월 1일 전국 14번째이자 대구경북 최초로 '붓다로 살자' 실천 도량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자성교좌선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500여 대중이 함께했다.

도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의 '붓다로 살자' 친필 휘호를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우리 모두가 '붓다로 살자' 실천을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덕암 주지 혜경스님이 동화복지재단에 복지 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사부대중들은 다함께 '붓다로 살



자'의 세가지 실천정규를 낭독했다.

대중들에게 손창수 동화사 신도회장은 "참선수행을 생활화 하자"며 "특히 부드러운말 고운말을 사용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동림동문회, 2015년 워크숍 성료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무문)는 10월 1일 경북 문경 혜국사에서 2015년 국내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회장 무문 스님, 명예회장 학명 스님, 사무총장 지담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삼척 도덕정사, 추석맞이 자비나눔



삼척 도덕정사(주지 미광)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관공촌 어르신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도덕정사는 9월 23일 삼척 도계지역 소외어르신 187구를 방문해 햅쌀과 불고기 등을 선물하고 겨울나기용 연탄을 전달했다. 도덕정사는 매달 지역사회 소외어르신들을 찾아 연탄과 쌀을 나누는 '연밥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나눔행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덕정사 스님들과 신도뿐 아니라 경동상덕광업소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주지 미관 스님은 "이웃이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제자라면 먼저 주변을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육천불교사암聯, 영규대사 추모제향



육천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30일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기허당 영규대사(1592년)와 중봉 조현(1544~1592년) 선생에 대한 추모제를 육천 가산사에서 진행했다.

가산사 영정각(충청북도기념물 제115호)에는 영규대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승려들에게 학문과 무술을 연마시켰다는 기록과 함께 대사와 조현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영산재 범패소리 氣 에너지치유명상' (Yeongsanjae Bumpaesoeri Ki Energy Healing Meditation). Includes text about the benefits of the practice, contact information (02)393-8027, and details about the Yeongsanjae Bumpaesoeri Ki Energy Healing Meditation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Sachal Beldang Amp Installation Specialist). Features a list of services, product specifications for various Yamaha and other audio equipm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uco Music Research Institute.